

익산, 아프리카 돼지열병 철통방역

충남 등 북부지역 유입 원천봉쇄, 왕궁 방역 강화

익산시가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위험요인을 원천 봉쇄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1일 익산시에 따르면 경기·충남 등 북부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사료차량과 가축수송차량, 생축, 가축분뇨 등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있고 방역이 취약한 왕궁 등 밀집사육단지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달 16일 경기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최초 발생 즉시 정현을 익산시장을 본부장으로 '가축 질병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거점 세척소독소 2곳과 왕궁단지에 농장 초소 3곳을 추가 설치했다.

또한 생석회 66톤을 공급해 축사 입구와 주변에 뿌리고 축협의 공동방제단 등을 활용해 취약 농가를 집중 소독하는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추진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ASF 전담관을 45명으로 확대해 농가예찰을 강화하고 왕궁농장 및 상지원 내 간선도로 26곳을 폐쇄했다.

농장초소도 1곳을 추가해 4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살수 소독차 1대를 고정 배치해 주 3회 왕궁 내 도로 세척소독 등 소독조치를 강화했다.

외부 방역대책으로는 1번국도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4곳을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지난달 26일 12시부터 타 도에서 유입되는 생축(도축장 포함)과 사료, 가축분뇨, 돼지 정액 등의 관내 반입과 반출을 금지했으며 사료의 경우 거점세척소독시설에 사료 환적장 1곳을 지정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익산시는 연초부터 거점세척소독시설 1곳 상시운영과 14개 읍면에 16명의 ASF 담당관을 통해 농가예찰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 방역관리



1일 익산시는 왕궁 등 밀집사육단지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를 추진해 왔으며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양돈장 1곳은 지난 5월부터 배합사료 급여로 조치한 바 있다.

최봉섭 미래농정국장은 "ASF 유입 차단을 위한 소독조치와 간선도로 폐쇄 등으로 시민의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지만 가축질병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축사 내외부 매일 세척소독 등 자발적으로 농가 방역준수 사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청년창업가 육성 창업희망기움 협약

1차 지원 500만원·창업비 월 100만원씩 최대 24개월까지

군산시가 혁신적인 청년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청년창업 희망기움 사업'에 참여할 청년과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26개팀 42명을 선정하고 지난 9월 30일 군산시 청년플(청년·창업센터)에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창업가들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부터 문화관광콘텐츠 창업, 핸드메이드 상품을 아이템으로 한 수제창업 창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아이템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창업초기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정착율을 높이고 창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지원금 500만원과 창업활동비 매월 100만원씩 최대 24개월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청년창업가의 사업성과 성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매월 지급되는 창업활동비는 임차료, 인건비 등 창업초기 일정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안정적인 창업기업 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발된 청년은 군산시 청년플에서 준비한 '군산청년창업캠퍼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문가의 교육과 멘토링, 후속 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이와 함께 군산시는 사업을 확대해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청년창업가 추가경정예산 2차 모집을 위해 지난 달 30일 '군산시 청년창업 희망기움 사업 청년 (예비)창업가 2차 모집' 공고를 게재했다.

지원 자격은 만19세~만39세의 군산청년 중 자신만의 창업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예비창업가이거나 3년미만의 기창업자이다.

접수기간은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군산시청 일자리창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창출과(454-438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제18호 태풍 '미탁' 대처상황 긴급 점검

익산시는 1일 영상회의실에서 제18호 태풍 '미탁' 복상에 따른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현을 익산시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시는 현재까지 태풍에 대비해 급경사지 13개소, 배수펌프장 12개소, 소규모 위험시설 11개소, 산사태위험지역 31개소, 재해취약지역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세월고 5개소, 언더패스 2개소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자율방재단원을 책임자로 지정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협업 유관기관과 재난 대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비닐하우스 9240동, 그늘막 145개소 안전조치, 옥외광고물 및 현수막 철거 등 사전 예방조치를 지시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태풍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해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 접수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 피해 지역 현장점검과 신속한 응급복구 및 구호조치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익산, '노인일자리 사업' 최우수상

2년 만에 사업 불모지서 선진지로 대도약

익산시는 1일 여의도에 위치한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주관하는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전국 지자체와 수행기관, 참여기업 등을 대상으로 8개 분야에서 종합적인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분야별 우수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이번 대회에서 시는 전국 종합 10위를 차지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은 공익활동 분야 우수상,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은 시장형 분야 대상, 지역 업체인 (주)경주사랑과 (주)하림은 각각 고령자친화기업 분야 최우수상과 참여기업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번 평가에서 익산시는 전라북도도를 포함한 도내 총 13개 중 5개를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노인일자리 사업 선진지로 대도약했음을 입증했다.

시 관계자는 "2년 전까지 하위권에 머물던 익산시가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 주

도의 자체교육을 통한 수행기관의 업무능력 향상, 정기적인 간담회와 워크숍을 통한 담당자 간 활발한 정보교류, 수행기관 관리체계 개선, 참여 어르신들의 열정과 적극적인 협조, 조직 내·외의 지속적인 관심 등 다양한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 익산시 복지국장은 "미세먼지와 관련한 흉포와 정화식물 육성·배포 사업, 공동주택 안내 및 주차장 계도 등 우리시의 당면과제와 연계한 사업을 개발하고 환경인주차구역 계도, 버스정류장 환경미화 사업 등 시민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사업개발과 이번 수상을 계기로 중앙부처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요청·확보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와 시민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전함과 동시에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하도록 마련된 사업으로 익산시는 올해 189억 원(국·도비 1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597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

군산시가 사회적 경제의 비전과 5개년 중장기 추진 전략 및 세부사업 등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군산시 사회적 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는 조직·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공 및 시장 경제 부문을 보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작년 군산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해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군산시 사회적 경

제발전 비전과 목표설정,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추진전략 및 실천방안 마련, 군산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체계 정립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또 군산시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5개년 중장기 추진 전략 및 세부사업 등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담겨졌다.

기본계획은 '사회적경제로 공동번영하는 군산'이라는 비전 아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지역성장 견인 경제체제 구축,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윤동욱 부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우리 시 사회적경제 발전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분야의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